

이세준 <세계관>

아티스트 토크 녹취록

패널: 이동근 작가

2019. 5. 25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김인선 (이하 '김') 안녕하세요. 이세준 작가님이 워낙 오랜만에 전시를 가지셨어요. 얼마만의 전시죠?

이세준 (이하 '이') 제가 2015년에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무엇을 볼태울 것인가> 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했었고 윌링앤딜링에서는 햇수로 4년만에 다시 전시하는 거네요.

김 그리고 이동근 작가께서 패널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근 작가님은 학생으로 처음 뵈었는데 그때 독특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던게 기억납니다. 그때는 회화작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른 매체들도 사용하고 계시죠. 하이트 컬렉션의 기획전에 참여하셨을 때는 특정 여행에 대한 소재로 소설책을 따로 쓰시고 그에 파생하는 듯 한 회화적 설치작업을 보여주셨구요.

이동근 (이하 '근') 네 그때 그 당시에는 조금 제가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과도기적인 상태였어서 머릿속으로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글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게 마치 픽션, 소설처럼 느껴진다고들 하더군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래 소설로 치자 이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김 네, 오늘은 이세준 작가의 이번 전시 <세계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 시간 내주셨습니다. 이세준 작가님께 우선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Weltanschauung>라는 단어로 제목 번역을 주셨어요. 생소한 단어 같은데 영어가 맞나요?

이 그 제목이 영어이긴 한데, 독일어가 원어입니다. 그런데 그 독일어의 원어를 영어권의 외래어처럼 그대로 사용하는 식의 단어인 듯 해요. 발음은 저도 정확하진 않아요. 사실 영어로 World view 정도가 있긴 한데 이 단어는 제가 원하는 의미까지 내포하지는 않는 듯 하여 찾은 단어입니다. '세계관' 그 단어 자체보다는 우선 제가 의도하고자 한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너 세계관이 뭐니?'라고 묻지는 않잖아요. 어떤 SF 소설이나 판타지 소설 혹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만들어진 콘텐츠가 그리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습과 다를 때, 이 세계관은 가령 마법이 있는 세계관이거나, 드래곤이 존재하는 세

계관이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 전에 한참 인기리에 종영된 '왕좌의 게임'을 보면 처음에는 중세시대처럼 나오다가 나중에는 마법도 있고 죽은 사람이 부활도 하고 용도 등장하잖아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특정 세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말하는 단어 같아요. 근데 '관'은 '볼관(觀)'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계관을 말할 때 각자가 다 살면서 가지고 있고 세상을 보는 시점, 시선이라는 생각을 해요. 쪽 작업을 하면서 제 관심사는 저 자신의 세계관을 탐험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뭘까?'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있고 어떻게 생겨났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했어요. 답을 내릴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렸던 그림들도 하나의 그림에 계속 이어 붙여가며 그려나가고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 커다란 풍경을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내가 직관으로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큰 세계의 일부일 수 밖에 없으니까 내 그림도 일부만 바라보게 되는, 움직이면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 싶었구요. 그러다가 문득 다른 사람들의 세계관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 때문에 2014년 무렵부터 다른 사람의 세계관을 설문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를 쌓아 나가다 보니까 저랑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 또 아주 비슷한 것들도 있어서 그들이 가지는 세계관의 재미있는 요소들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해서 모았던 그림들로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된거구요.

김 작가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꾸준히 표출을 하는데 몰두하는 것도 힘든 작업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모아서 또 그 개개인의 것들을 또 하나하나 표현한다는 것이 힘들지 않았나요?

이 그렇다고 제가 절대로 그들의 세계를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긋나는 간극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여줄 수 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그 생각을 백프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혼자 상상해보는 거겠죠. 저 사람이 이런 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만의 방식으로 다시 이런건가? 이런 식으로 재현하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세계관이 레퍼런스가 되어서 저의 스타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 그리고 다른 타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설문이나 대화를 통해 듣게 되면 일단 언어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인지하게 되는 거고 언어로 인지하는 순간부터 듣는 사람의 주관성이 개입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어찌보면 소스를 체득하는 이의 자기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방법론으로서의 베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독해될만한 도상들이 오히려 이제 표현적이거나 이미지를 파괴한다든지 혹은 녹아내리게 하거나 이 과정에서 있는 작가 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조금 더 주관을 드러낼 수 있는 캔버스가 되기 위한 대상들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이 작가는 어떤 위치에서 조망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사실 본다는 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오히려 더 안들거든요. 세계관이라는 것을 세계관 자체를 밖에서 바

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온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대개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관이라고 하는 순간 뭔가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객관화하거나 대상화하거나 그런 지점으로부터 떨어진, 모호하게 있는 구조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수행해내는 몸은 어디에 있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재밌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다시 말해, 일반적인 도상이나 독해 가능한 영역들 그런 것들이 그림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것들을 자기만의 감각으로 점철시키는 방법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점이 어떤 언어로 대변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감각들과 행위들로 이루어져있는지 이야기하면 좀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이 우선 도상에 관한 이야기부터 할게요 작업을 보면 계속 반복하면서 나오는 도상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세요. 봐주시는 분들이 왜 자꾸 해골이 나와? 자꾸 왜 고양이와 나와? 도마뱀은 뭐야? 저는 아까 이동근 작가님이 살짝 힌트를 준 걸수도 있는데, 무언가를 그릴때 그려지는 무언가가 자기의 원래 기의(記意)를 잃어버리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다른 공간에서의 개인전에서 <포락지Submerged land>라는 제목을 썼던 이유는, 원래 땅이었다가 물에 잠겨서 땅이 없어진 그런 땅을 포락지라고 한대요. 부동산 용어라고도 하고. 저는 재밌던 부분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땅이 이세준의 땅 뭐 이동근의 땅,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보면, 댐을 지으면서 수몰이 되면 땅이 아니게 되면서 소유권이 없어져요. 그 전에 어떤 보상을 받거나 하겠죠? 그런 다음 다시 물이 다 빠지고 땅이 되더라도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의미의 소유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상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다면 이들을 한 번씩 물에 담궜다가 끄집어내서 의미의 소유권을 잃어버린 도상으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전시가 2016년 케이크갤러리에서의 전시였죠. 그 때 수집했던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방식 자체가 그랬어요. 해골을 그렸다 하면 해골이 원래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의 해골과는 또 다른 의미로, '메멘토모리' 같은 것이라기 보다는 그냥 조형적인 의미에서 얇고 들쭉날쭉한 의미들로 가득 차 있는 화면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바라보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문제랑도 조금은 붙어 있는 질문 같아요. 모든 걸 객관화하지는 못하겠지요. '이 그림에서는 제가 의미를 뺐으니 그냥 보세요' 라고 해도 당연히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의미랑 연관 지어서 그 그림들을 해석하게 되겠지만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들쭉날쭉하게 하고 싶었어요. 어떤 것들은 매우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는 도상이 있고 어떤 것들은 정말 가볍게 존재하는 화면 안에서 표현방식 자체도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밀도가 높은 화면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얇거나 물감의 농도가 묽기도 하면서 비균질적인 화면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 그게 결과적으로 작가님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반영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 네. 제가 바라보는 세계 모양을 그림을 그리는 형식으로 치환해서 그린다고 보면 그게 아주 기본적인 제 그림의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김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맺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일반론적인 결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작가의 시선 뿐만 아니라 누구든 그런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이세준 작가가 사용하는 색채에서 작가다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저는 이번 작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그려야지 아니면 어떤 색깔을 써야지 이런 것들은 그 고민을 사실 더 했었어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색깔이 화려하고 채도가 높고 이런 것들도 특별히 그렇게 의도했다기보다는 그냥 제게는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어떤 저의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이 이 전시를 보면서 물음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림이다 이렇게 가볍게 보는 분들 보다는 대부분은 이게 무슨 의미지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왜 벽을 가득 채웠지? 아니면 풍경에 대한 스케일이나 구도 등등에서도 궁금증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근 궁금함이라기보다는 작가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작가의 어떤 적극성? 그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이를 파악하고 싶어지는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딱 올라오면서 보자마자 처음에 저 그림이 많은 벽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마치 제삿상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제삿상을 위에서 보면 저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 집이다 보니까 저게 테이블로 보이고 여기를 꼭 채워서 진설(陳設)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림들을 보다 보니까 좀 어두운 그림들 같은 경우엔 뭔가 송가(頌歌) 같기도하고. 그렇다고 딱히 무섭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분위기로 어떤 모티브로 이 작업이나 설치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을까 등의 것들을 관심 있게 보는 편인데 그런 분위기가 이전과 좀 달라졌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케이크 갤러리에서의 전시도 그렇고 컬러이야기를 좀 하자면 처음엔 분명 의식하고 컬러를 고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의식이 아니라면 작업 앞에서만큼은 조증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건가? 그렇다면 우울도 있을 것 같은데 우울만큼은 그림 바깥에 두고 싶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다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림 앞에서의 태도와 그림 밖 사람으로서의 태도, 감정상태나 그런 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본 것 같고 지금 최근의 작업들을 보면 그 두 개가 섞여져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조랑 우울이랑 둘이 애매하게 수면 위에서 약간 옆치락 뒤치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대상에 작가가 조금 더 수동적으로 반응한다 정도의 생각을 했어요. 대상이 선정이 되면 그걸 나서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바꾸고 변질시키고 이런 것도 그 전에 것이 좀 더 강했던게 아닌가. 지금은 조금 수동적인 상태로 자기가 뭔가를 기다리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전보다 훨씬 더 구상화된 것 같은 느낌?

이 오히려 저는 더 극단화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림의 일부분은 구상인 부분이 있는데 구상인 부분들은 더 구상화되고 더 재현, 모방, 일루전 쪽으로 간다면은 나머지 부분들에서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전보다 더 추상화되어서 간극을 더 넓히고 싶었어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의도된 걸로 봐도 됩니다.

김 제가 왜 구상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추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도 추상적 감정을 구체화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네요.

이 재현이라는 토대 안에 어떤 추상적인 것을 콕콕 박아두고 싶었어요. 제가 그 전에도 일종의 추상적 표현이 부분 부분 나왔었는데 그게 덜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덜 드러났던 이유가 비교대상이 없는 거죠. 비교급인 구상적인게 없으니까 이게 추상처럼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거의 비교급인 구상을 두고 양극에서 서로가 부딪히면서 서로 잘 드러나게 해주게끔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김 훨씬 더 비교가 되니까?

이 네, 더 넓어지게끔.

김 설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이동근 작가는 어떤 답을 했을까 좀 궁금한데요?

근 기억이 잘 안나요. 왜냐하면 너무 길고 문항이 많아가지고. 다들 그렇게 느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답이 정해져있는건가? 그런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김 객관식이 좀 거슬리긴 했어요. 내가 답할 수 없는 항목들이 좀 있어서.

이 거기에 이제 기타 대답으로 해서 쓸 수 있는 품이었는데 이게 제가 프린트로 뽑다보니까. 구글 폼에서는 제가 기타에 따로 쓸 수 있게 해놓았거든요. 그런 객관식 문항에 대답이 조금 미흡한거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걸로는 쓴다고 했어도 또 세계관이란 너무 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구요. 이 설문에 심히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셨어요. 의외로 왜 자꾸 나에게 이런 궁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봐? 하고 반문하시죠.

김 그런데 답은 많이들 하셨던데요. 대답이 딱딱 차 있더라구요.

이 마지막 문항에 '혹시 다 대답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느냐,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점이 그랬느냐', 이런 질문에 '내가 궁금하지도 않은 것을 자꾸 물어보고있다, 이런 게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데 내가 왜 대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흥미가 없는 질문들이다, 나한테 큰 이슈가 아니다' 그런게 많았구요. 실제로 형이상학적 질문이니까 답이 없는 거잖아요. 답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답을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질문을 놓았던 이유는 그림을 그리면서 저에게 계속 그게 큰 이슈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떨까? 답을 못 얻었으니까. 궁금하고 앞으로도 계속 궁금해할 것 같고. 제가 재밌었던 것은 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대답을 하시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종교

가 패키지처럼 이미 세계관을 만들어서 제공하거든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런 것들. 어떤 종교는 있어, 없어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거야 그것도 종교에서 다 답을 주죠. 죽으면 어디로 가. 죽으면 환생해 등등 이렇게 다 답을 주는데 이런 대답을 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종교는 없지만 자기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저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 모든 대답들을 자기가 직접 찾아서 해야되는 거예요. 공부도 해보고 아님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살아봤더니 운명은 있는 것 같아, 만날 사람은 만나더라고 이렇게 경험적이고 귀납적으로 자기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있는거죠.

김 제가 그래서 질문에 답하는 게 재미있었던것 같아요. 저도 종교는 없고 나만의 세계관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근 저의 경우는 뭔가 질문들이 이제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서 수고롭지는 않았고 조금 더 섬세한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 같긴 해요. 좀 더 디테일 같은 것.

김 질문은 점점 더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원래는 질문이 아주 조금 밖에 없었는데 질문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죽으면 어떻게 될지 그 정도의 간단한 질문으로 출발하다가 나중에는 군더더기가 붙었죠. AI에 대한 질문도 있고 귀신과 유령의 존재, 초능력에 대한 것. 제가 오컬트에 관한 것들도 인터뷰 하면서 그런 분야들도 궁금해지더라구요. 아니면 UFO라던지 외계인. 인간의 다른 지적 생명체를 우리가 만났는지 없으니까 또 그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이 바뀌게 될지. 기성종교는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이 점점 추가된 것 같아요. 이 질문지를 천주교 신부님이 대답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예전 오픈스튜디오 때 오셨던 분인데 가시는 길에 제가 요청 드려서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척척척 진행 하시다가, UFO부분 이라던지 환생 이런 부분에서 신부님이 믿고 있던 것이 천주교 교리랑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거예요. 저는 천주교 교리는 잘 모르지만. '신부님, 이 부분은 성서에 따르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여쭙봤더니 그런 것들은 본인도 자기 안에서 화해시키는 노력을 해야될 것 같다, 기도와 함께 이런 것 공부를 좀 더 해봐야될 것 같다 하셨어요. 자기 세계관이 확장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재미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김 작업자체가 작가가 독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해요.

이 저는 되게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되게 보편적인 사람이고 저의 생각은 되게 스탠다드 한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동근 작가는 그냥 보기에든 되게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근 말을 잘 골라서 하셔야돼요. (웃음)

이 특별한 사람이고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이 있고 말투나 사고방식이나 특이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커먼센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

말하니까 일부에서 어떤 사람들은 넌 진짜 이상해, 그런 생각을 왜 해? 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때, 저는 놀라거든요. 남들 다 하는 거 아니었어? 그런 생각. 그러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김 서로를 매우 이상해하네요.

근 자기가 본인을 보편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최근에는 듣기 힘든 것 같은데.

김 저도 이세준 작가 처음 만났을 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게, 예를 들어 약을 사면 그 뽀뽀한 약 성분 등이 적힌 설명서를 다 읽어본다고 하더라구요.

이 저처럼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 성분에서 뭐가 부딪히고 안되고 그런 것까지 보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김 의심이 많나?

이 그래서 그럴거라는 생각을 지금도 어느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분명 있을거예요. 제가 엄청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는 저의 약간의 독특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조금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도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인 인물인거죠.

김 네, 그럼 보편적이라 치고 회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죠. 이동근 작가의 경우도 여러 매체를 하지만 제가 이동근 작가가 학생일 때 본 작업은 페인팅이었죠?

근 저도 본인 작업을 회화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장르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 정도였는데 얼마전에 유학가있는 친구한테 그림을 그리지 않으니 기분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김 요즘은 무슨 작업하세요?

근 요즘은 스프레이로 뿌리는 작업도 하고 의자도 만들고 이것저것 하고 있긴 한데 저는 결과적으로 평면 조형 정도로 보는 듯 합니다. 흔적을 보기에 적당한 매체라서 회화 형식처럼 평면 상태로 펴서 보여주는 방법론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결과물을 저는 흔적이 누적된 상태가 더 중요해서 오브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아니까 그 친구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림을 안 그리니까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던 거죠. 그 친구도 그림을 그리는데 지속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계속 할까 말까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엔 회화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답 내리기 어려운 거지 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친구여서 답을 하려고 하다가 회화라는 것이 엄청난 개인성을 전제로 해야한다. 그리고 의미가 빨

려 들어가서 블랙홀처럼 특이점 그 안을 볼 수 없는데 보고 싶은 게 되야 한다. 그게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특이점 상태가. 블랙홀에 빨려들어갈 때 빛나는 그 상태라는 게 엄청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근데 실체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여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거기까지 가는 생각의 경로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가 안 되어있긴 한데 느낌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보다. 피하고 있는 건 아닌데 안하고 있으니 하고는 싶지만 그런 복잡한 생각이 나한테 큰 장벽일 수 있겠다. 그 어려움에 대한 성격이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평면으로 캔버스에 마무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이게 회화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듣고 싶었어요.

김 매체나 형식 이 차원을 더 넘어서.. 조각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근 조각에도 해당이 되긴 하는데, 저는 그림이 재현이라는 것에 대한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어떤 벽을 넘어야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고 나서 단순히 추상으로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카테고리들이 있어서 그 벽을 넘어서고 나서 남아 있는 그 부분이 순수하게 개인적인 상태가 되면 회화 안에서 참으로 매력적인 결과물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장르, 영상이라던지 조각도 회화랑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조각은 몸으로 느낀다는 단계가 저한테는 한 단계 더 있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각의 경우는 그냥 즐길 수 있는데 회화는 그냥 즐기는 느낌이 아니어서 초-전투적인 제스처 아니면 완전히 사람이 그 안에 빠져들어있는 그런게 없으면 저는 회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아카이빙, 드로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 재밌는 발상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동근 작가가 회화에 대하여 새롭게 접근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해하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회화는 평면 조형을 말하는 거 같아요. 거기에 더 깊은 뜻을 더 부과하고 어떤 개념적인 용어로서 개념으로서 회화라는 용어를 쓰니까 다른 사람한테 너희가 하고 있는게 회화냐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까지 심도있게 접근을 하면 제가 하고 있는 회화는 회화가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는 이동근 작가의 언어 속에 회화라는 개념은 제가 아직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면 조형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림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회화이거나 개념어로서의 개념 내린 회화에 잘 결부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회화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겠지요. 근데 또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개념 자체가 되게 직관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획을 하나 긋고 안 긋고 이미지 하나를 쓰고 안 쓰고 재현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은 직관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